朝鮮日報
第二夕刊 五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追頭된春期攻勢對備
佛召集免除者再召集
瑞西도國境兵六萬增員

【巴里四日發同盟】傳하는春季攻勢를앞두고 佛政府는 四日左의初年兵은 今年四月十日부터 佛軍에編入한다는뜻을 公佈하엿다

一、一九一九年七月一日부터 同年九月三十日까지의사이에 出生한者

一、一九三〇年부터一九三二年까지의사이에 召集되엿든男子及一九三八年과 一九三九年度의第一種兵으로서 兵役에不適當하다고 思惟되엇거나 또는兵役免除를받은 男子로서 現在現役또는 補充兵役에 適合하다고認定되는者

一、一九三九年度 第二種兵에屬하는 男子卽一九一九年七月一日부터 同年九月三十日까지에 出生하여가지고 現在現役또는補充兵役에 適合하다고 認定되는者 (佛三百萬大動員)

【伯林四日發同盟】瑞西軍最高司令部에서는 國境防備軍增强을計畫中이엿는데 四日國境防備豫後備兵六萬에 對하여 召集令을發하여 豫定보다 三日일직三月九日入隊하게를 命令하엿다 右召集이豫定보다 일직行하여지것은 獨軍이 國境方面에잇서 活潑히活動하고잇슴에 刺戟된것이라하여 注目된다

바드探險 補助費否決

【華盛頓四日發同盟】아메리카下院은 四日國務省豫算一億一千九百萬弗案中에는 바드南極探險隊補助費二十五萬弗이 包含되어잇섯는데 審議의結果 바드少將이 昨年議會에 虛僞의經費報告를하엿다는 理由로 否決되엇다

芬蘭軍에危機切迫
六月前後에運命決定?

【經肯四日發同盟】芬蘭軍이뷔프리陷落後 依據할陣地에 關하여는 여러가지觀測이잇스나 蘇聯軍의作戰이主로레닌그라드、헬싱키鐵道線에沿하여 뷔프리로 부터西進하여 카치리히마카 順序로 헬싱키에肉薄하려는 것으로보이나 北方의戰況이 不活潑하므로 當地에達한諸情報는 大體蘇聯軍今後의 進路는

一、뷔프리의 正西쪽으로부터西北에빠치는 사이마運河線에따라 사이마湖에이르고 그곳으로부터 東쪽 보크시、스바든湖를經하여 라도가、라레파레에 이르는線 又는

一、뷔프리의 正西로부터 東北으로向하여 보크시、코니탁시、스바든湖를 經하여 다레파레에이르는線

에이르는線의 둘中 어느것이고 進擊하리라고 보고잇다 萬若 라도가湖北側에잇는 蘇聯軍의前進이 進捗되면 芬蘭軍은 보크시、스바든을 抛棄하고 사이마運河에 沿하여 사이마河에 이르고 다시사이마의湖東北에 達하는 湖沼群에 依據할것이나 이러한境遇에는 戰線의 기리가 너머나기러서 防備기 薄弱해질 것이라고 念慮하고잇다 芬蘭軍側은뒤로 三週間만 奮鬪하면 解氷期增水期가되어 四月한달은 混戰狀態에 빠지리라고豫想하고 其間에 瑞典諸威로부터의 義勇軍의 來援과 米國其他로부터의 物資供給增加를 期待하여 三日間에 奪取할豫定이던 뷔프리를 占領하기에 三個月間걸린 蘇聯의 舍씨로보면 헬싱키까지는 容易히 進擊치못하리라고 稱하고 잇스나 만일에 臨線의 西南端의 重要陣地 뷔프리가 突破된以上 그背後의陣地는大概急設한것이므로 氣候가變하면 蘇聯軍의 前進에便利케될事情도잇스므로 從來의 戰績으로만 類推할수는 업슬것이다 五月이 危險한것은芬蘭軍側에서도自認하고잇는바이다 他方스칸디나비아 方面으로부터의 情報는 瑞典 諾威가코펜하겐에서의 北歐外相會議의決定에基하여 和平의努力을 계을리안코 莫斯科도安協할意向이 全然없는것이아니므로 어떠한 카렐리아地峽一帶의地와 芬蘭灣의 砂島를取得함으로써 滿足하고 테리요키人民政府를 解消하여도 조타는 意向을 가지고잇다고도 傳하는데 假使헬싱키政府가 聲明한 五割의 損害를 蘇聯軍이 實際로 밧고잇다고 하더라도 이가튼條件으로 媾和함에는 事態가 너머나 擴大되엇다고보는 이만하여 結局和平說은 和平熱에서生긴 스칸디나비아側의宣傳이아닌가고 疑心된다 以上豫想外에 英佛獨戰爭의 推移에따라 芬蘭의 運命은 六月前後에는 大體決定될것으로 보인다

滿洲建國八周年祝典 (上、忠靈塔前廣場에서의慶祝式典 下、同帝宮前)

齋藤氏極刑形勢에
反對派懲罰委員辭任乎

【東京電話同盟】齋藤氏問題는 五日午後의 民政黨代議士會에서 結局除名하기로 黨議를決定하게 되엇는데 從來 齋藤氏의友人으로서 同氏의 自發的辭任實現을 爲하여 奔走한 八距武治氏를 비롯하여 除名反對論을 主張한 勝田永吉、平川松太郞、作田高太郞、池田秀雄諸氏의 懲罰委員은 此際 非公式으로委員辭任의 意向을 발하여왓스므로 懲罰委員會로서도 六日의會合을 臨함에當하여 어떤의希望을 容納하여 相當히 懲罰委員의 入替가 行하여질 모양이고 또 이것을 本會議에 上程함에 當하여는 八距氏外 除名反對論者는 欠席하여 表決에加하를避할 意向인모양이다 그리고 齋藤氏의 辭職을엇고 中井懲罰委員長과 各派와의 交涉에 當한 俵院內主任總務及 內藤幹事長의兩氏도 問題의 落着을 기대려辭任하여 그責任을 明瞭히할것이라 한다(寫眞은 齋藤氏)

民政黨의大勢 結局除名에贊成乎

【東京電話同盟】齋藤氏問題에關한 四日夜의 民政黨臨時聯合會議(院內總務와 懲罰委員과의)는 于先 俵院內主任總務로부터 齋藤氏가 進退考慮를 言明하면서 四日에어르러 辭意를 翻意하게 된經緯를 報告하고 이에基하여 다시同氏의 懲罰問題에關한 意見交換을 行하고 議論百出後 結局 大勢가 여러케되면 벌써除名以外에 方途가 업다는 意向에 기우러젓는데 今日態度決定을留保하고 明五日의代議士會에서 充分한論議를다하기로 決定하고 同九時半散會하엿다 그런데 黨內에는 齋藤氏의今番의行動에依한除名說은 漸次決定的으로 되엇는데 除名反對論者도 大勝黨藤氏가 一旦進退의考慮를明言하고 이에依하여議員辭職을諒解시키고 特히院內의公共機關인懲罰委員長에게까지 正式으로提出하엿슴에不拘하고 여와反對되는行動에나오는것은公人인政治家로서 不信이라는誹謗을 免치못한다는것은一種의 感情論이다 따라서 此際本質的인 院內事情과는 別個의 問題이므로 懲罰에는 出席停止程度가 當然하다하여 依然對立情勢를 보이고 잇다 如結果 五日本會議散會後 本部에서 代議士會에서는 相當한議論의 紛糾는 免치못할것으로보나 結局首腦部의 旣定方針대로 除名으로써 幹部一任에 落着될것으로본다

辭意撤回를通告
齋藤氏中井委員長에게

【東京電話同盟】熱海에湯治하여 議員辭任撤回의 意思表示를한齋藤隆夫氏는 五日午前九時 電話로써 懲罰委員長中井一夫氏에게 對하여 自己의進退에關하여 여러가지로 考慮하여보앗스나 結局辭任치아키로 決意하엿다 今後의 處置는 아모조록 잘하여달라고 回答을하여왓다 따라서懲罰委員會는 豫定대로 六日午後一時부터 開會討論採決을 行하기로되엇다

英內閣改造說
空相에 어든自治領就任?

【倫敦四日發同盟】AP倫敦支局이 官邊消息側에서 어든 情報라하여 傳하는바에 依하면 체임벌린內閣은 又復改造를 斷行하려고 考慮中이라고한다 AP報道要旨는 如左하다

체임벌린首相은 目下內閣의大改造를企圖하고잇다고傳한다 右內閣改造의 說에 올른사람은 킹크레웃드空相、레스리버진軍需相、항케無任所相으로其中에도 웃드空相은 燈火管制問題로 最近猛烈한非難의的이되어잇고 空軍의 指揮權問題로도 軍部의意見이 一致되지아하 그進退가 云云되어잇는것이다 그리고 웃드空相의 後任에는 이든自治領相이就任하게될것이다

獨蘇國境劃定進捗
國境標識三千本建立

【莫斯科四日發同盟】獨波蘭의獨蘇國境劃定交涉은 그後順調로進行하여지고잇는데 去月二十七日約一千五百키로에 걸처 國境의劃定을終了、國境標識二千八百二十本을 建設하엿다

鮎川氏獨外相會見

【伯林四日發同盟】過般來當地에滯在하여 官民各方面과 折衝中이던 鮎川滿業總裁는 四日리벤트롭外相을 外相官邸로 訪問하고 意見을交換하엿다

瑞西公使 信任狀捧呈

【東京電話同盟】이番着任한 瑞西國特命全權公使카류·고르제氏는 五日石川式部官의 迎接으로 午前十時 宮中差廻自動車로 帝國호텔發 參內하여 午前十時三十分 鳳凰間에서 天皇陛下께拜謁하고 信任狀及 前任公使의解任狀을 捧呈하엿다 陛下께옵서는 이를 優渥하옵게 使에對하사 勅語를 내려주옵신 光榮에恐懼한 公使는 그런後 夫人同伴 桐間에參進 皇后陛下께 謁見하고 午前十一時宮中을 退下하엿다

米、駐獨大使復活乎
웰스次官의訪獨契機로

【華盛頓四日發同盟】웰스國務次官의 訪歐는 여러가지 理由로 注目되는데 웰스次官의 訪獨에 依하여 米國의 駐獨大使派遣問題가 最近 復活될것은 確實視된다 그러나 當局者의 多數는 이는 今次 歐州戰爭에앞서 行해진 獨逸의 波蘭進入을 容認하는것이라하여 反對를 表明하고 잇스므로 웰스次官의 歸國까지는 最後的決定은 보지못하리라고 보고잇다 그리고 웰스次官이 今後 波蘭亡命政府當局과 正式으로 會見할지 어떨지의 問題에 關하여 헐長官은四日記者團의 質問에答하여 如左히 말하엿다

波蘭政府가 今番 웰스次官의 訪歐日程으로부터 除外된 事實에 遺憾을 感하고잇다고 들리나 웰스次官이 巴里滯在中에 同政府首腦와 正式會談을 할지 어떨지는 말할수업다

銀行券發行高週報

一、銀行券發行平均高 自二月廿五日 至三月二日 四三二、七六四、六三三
制限外發行高 三六、六○三、四七六
正貨準備發行平均高 一三三五、一六八、一五七
保證準備發行平均高 一九六、六○三、四七六
二、週末銀行券發行高 四三一、○一四、六七五

議會會期延長難免
稅制關係法案審議遲延으로

【東京電話同盟】貴族院은 今期議會의 最重要議案인 稅制關係法案이 오는十日이나 늦어도十五日까지에 衆議院으로부터 送附되지안는때는 愼重審議를期하기가 全然困難하겟스므로 衆議院의 議決이 그때까지안되면 會期의 延長은必至하게될것이다 目下議案送附後의 審議順序及그方法等에 關하여 各派間에서는豫備的協議를 進行하고잇는바 稅制關係法案이 모두 重要性을 가지고잇는 事實에鑑하여 二十八名으로된 貴族院으로서는 最大의 委員會를 設置하게될터인데 一方 審議의圓滑한 進捗을期하는 見地에서 衆議院과가치 이를同一委員會에 附託치안코 各各 성委員會에 分割附託方針이므로 稅制案에對한實質的審議는 特히 愼重히行하기로될것이다

八面鋒

◇ 齋藤氏 自發的辭職을 中止코 議會를 向하여 『용용죽겟소』。
◇ 『陳謝』、『聲明』을 두고 떠들던 懲罰委員會는 헛물만켜고 逐鷄望籬。
◇ 四百六十六名 齋藤良選들이 齋藤老童과 (숨바꼭질노름)에 白晝殿中은 春日이 遲遲。
◇ 이것을 事變第四年 戰時下議會風景이라고 歷史에 남기기는 考慮를多要。
◇ 獨軍이 白慶를 英艦으로알고 擊沈、英軍은 自國機를 獨機로알고 擊墜。
◇ 헛개비자뵈두록 換腦이 필요한 腦髓들은 바흘수도잇슬런데。
◇ 南總督 氏制定非强制性을再三强調、無爲而化는 王道의本然。

政府議案提出督促

【東京電話同盟】貴族院은 恒例의會期末에 엇서서의 議案殺到를警戒하여 先般各派 代表로부터政府에 對하여 注意를 喚起하엿는데 今議會도 今後二十日박게남기지안흔 今日重要議案多數가 依然衆議院에 停滯하고잇서 이議案이 會期終了直前에 貴族院에 送附될情勢에 잇스므로 現狀대로 推移할때에는 假令會期延長이 잇다고하드래도 愼重審議를 期하기는 到底히 困難할것이므로 近近政府에 對하여再次督促을 하고저 各派間에協議를 進行시키고잇다 그런데貴族院으로서는 督促이 無効果로도라간 實狀에鑑하여 今番은

一、本會議又는 豫算總會席上議事進行方法에 依하여 어떠한

一、議長及政府에 對하여 通告할것

一、書記長官으로하여금 政府에 通告할것

社頭對面할
遺兒宿舍決定

【東京電話同盟】今番事變에名譽의戰死를한 護國의英靈을奉祀하는靖國神社에 오는廿五日 모어는遺兒三千二百餘名이 上京하기로되어 宿舍로軍人會館 教育會館其他神田、麴町旅館에 各各分宿二泊키로 四日決定되엇는데 警視廳衛生部에서는 中春季節이므로 遺兒들에게 萬一의 일이라도 잇서서는 큰일이라고 旅館業者를招致하여 衛生上見地로부터 充分注意를促하기로되엇다 遺食은 勿論 其他料理作製에도 衛生檢查係員이 巡査指導에當하고 一方防疫課와도 連絡하여 料理人의健康診斷을行하여 傳染病이 發生치안토록 細心한注意를 하는同時에 各宿舍에는 衛生部를비롯하여 所轄署에서 係官이 藥品其他를가지고 出張하여 二日間遺兒들과 寢食을함께하며 身體가나쁜境遇에는 곳 應急治療를하기로되어잇다

古新聞紙輸出統制

【東京電話同盟】日本古新聞紙輸出組合에서는 今般古新聞紙의輸出統制를實施하기로되엇는데 統制確保를圖하기爲하여 商工省에서는 貿易組合法第十條를發動하여 關係支部의 古新聞紙輸出에 對해서 아우트사이다-를 統制하기로되어 六日付官報로써 告示公布하고 오는十日부터 實施할터이다

增稅理由三點
藏相、稅革委員會서答辯

【東京電話同盟】五日衆議院稅革委員會席上 櫻內藏相은 小笠原三九郞氏(政友中島派) 質問에對하여 今番의增稅理由에 關하여 左記三點을指摘 答辯하엿다

一、今番增稅는 赤字公債의元利償還을目標로 한것도 아니고 一定한經費를 支辨할것을 目標한것도아니므로 要컨대今後當分間容易히 國費가減少되지안는다는 豫測下에 이를모두公債로補充함은 財政計畫上 滋味업스므로 될수잇는대로 租稅에依하여 支辨하려는 趣旨에서이다

一、그리고 어떠한程度의金額은 經濟界에對하여도 큰影響은업다고생각하여 計畫을세운것이다

一、連年增稅를 反復하여서는 事業을經營하는사람들이 企業의 計劃을 세우는데 計算이서지안흐므로 當分間은 增稅할必要가업는程度의計畫을 세운것이다

銀의政府集中開始
對外支拂力擴充策으로

【東京電話同盟】金의 政府集中에뒤이어 我國의 對外支拂力充實과 經濟力擴充에 拍車를加코저 銀의 政府集中을 開始하기로되엇다 『金으로부터 銀에』라는 運動은 前番金毛獻納運動協會가 斡旋의主體가되어 大藏省造幣局의 分析에依한 鑑定에依하여 메달等 裝身具를비롯하여 코프、煙草匣、수저、花瓶、컵、文鎭、샤프펜等 銀製品全般에 걸처 同協會委囑의 鑑定專門家三十名이 出張하기로되엇고 希望에 따라서는 造幣局의 分析에 依한 貴金屬買上 一兩日中에 決定한다 政府의買入價格은 現在 日銀의公定市勢가 大體一키로四十六圓八十錢(一匁十七錢)이므로 이에卽하여 支拂하고 代用品으로充當할 製品으로써國民의 自發的賣却을 主眼으로하여 行하기로되엇다 生活上 支障이 업는것 또는 잇스나업스나 記念品 美術工藝品等의 賣却에際하여는 代用品의 提供과 保存等의 方法을 取하고 信銀과 銀鍍金製品에 關하여도 買上을 取扱하는 同時에 金賣却도 受付하기로 하엿다

西尾派遣總司令官
南支方面視察코歸還

【廣東五日發同盟】支那派遣軍總司令官西尾壽造大將은 南支方面視察目的으로써 二月二十五日南京으로부터 飛來하여 同午後 廣東着 南支最高指揮官以下各部隊長의 出迎을받고 ○○飛行場에 到着코 宿舍인 將校會館에 入하엿다 翌二十六、七、八、三日間廣東及同附近戰線을 視察하고 ○○部隊의 狀況視察을 마추고 同二十九日海口에 飛하여 同地駐屯各部隊를 訪問하고 三月一日南寧에 到着코 廣東으로 다시와서 二日午前九時 飛行機로 汕頭로 가서 各部隊를 慰問하고 傷病兵을慰問하고 臺北經由南京에 歸還의길을 떠낫다

西尾大將 南京에歸還

【南京五日發同盟】南支方面視察中의 支那派遣軍總司令官 西尾大將은 今朝南京에 歸還하엿다

米國錫再輸出高

【華盛頓二十九日發同盟】金物統計局은 二十九日에 一月中의米國錫再輸出高를 千五百噸으로發表하엿는데 이것은 前月의千二百二十九噸에比하여 二百七十一噸의增加이오 一月中의 再輸出高中에 實로 그七五%가 蘇聯米이엇다한다

海南島掃蕩開始
支那方面艦隊報道部發表

【軍艦○○四日發同盟】南支那海의 孤島海南島는 昨年二月皇軍의 손에드러 着着治安確定을 보게에이르럿는데 殘敵은 아직도 山中에 逃亡하여 潛伏하고 잇어 良民의 生活을 脅威하고 잇스므로 皇軍은 斷乎히 이를 一擧掃蕩하여 同島의 治安을 確立하기로하여 四日을期하여 徹底的討伐을 開始하엿는데 右에關하여 我南支艦隊報道部에서 다음과가치 發表하엿다

【上海五日發同盟】支那方面艦隊報道部五日午前十一時發表 我南支海軍隊에서는 最近新銳部隊를加하여 海南島內에서 至今도 아직 蠢動하고잇는 殘敵을 徹底的으로 殲滅하려고 四日 陸軍部隊와 緊密한 連絡下에 大掃蕩戰을 開始하엿다

【軍艦○○에서四日發同盟】南支艦隊報道部發表 海南島攻略以來 滿一個年에 沿海의要衝은 모두我方에歸하여 着着治安이 回復되고잇다고는하나 그러나 殘敵은 共匪와 土匪가 結託하여 良民을 威脅하며 治安을 어지럽게하고잇다 이에 南支海軍部隊는 新銳部隊를 加하여 三月四日을期하여 全島에 걸처 徹底的 掃蕩을 開始하엿다

定例閣議

【東京電話同盟】五日定例閣議는 午前九時부터 開會되어 먼저 石炭配給統制法案을 決定한後 지난二十五日 臨時閣議에서 決定된物價對策要綱에 依한 官制案을 決定하여 樞府諮詢手續을 取하기로되엇다 그리고 內閣에設置되는 物價對策審議會와 商工省에 設置될價格形成委員會(假稱)官制에 關하여는 아직成案을 얻지못하엿스므로 近日中에 閣議에 附議하도록 하고 同十時散會하엿다

石炭配給統制法 衆議院提出

【東京電話同盟】政府는石炭配給統制法案을 五日閣議에 附議決定하여 直時衆議院에提出할手續을 取하기로되엇다

敵兵戰死者爲하여 供養塔建立

【東京電話同盟】大日本忠靈顯彰會에서는 戰歿의英靈顯彰에 關하여 事業的인 計劃을 進行시키고잇던中 四日부터 上海 張家口를 爲始하여 支那大陸 二十餘個所에서 忠靈塔建立에 着工、大陸의聖戰에 大君의 御盾이되어 散華한 英靈을 顯彰하기로되엇는데 懷恩하옵게도 秩父宮殿下를 總裁로 推戴하옵신 各宮殿下의 御高配에 依하여 그愛護抗日의 手兵이되어 비록 敵將政權의 支那兵이지만 勇敢히 戰死한 支那兵의 英靈에對하여도 供養塔을 建立하여 支那民衆에게 忠靈顯彰의 精神을 理解시키기로 되엇다

한풍을 두려워아니하고 건강력을증강하는

特種動物 호루몬의效力
心臟과胸·胃弱한것을恢復하고 참으로몸을튼튼하게한다!

寒風을不拘하고 피여잇는 福壽草나梅花도 植物中에 充溢한生命力의 發現입니다。우리들의 健康도 內部의健康力이 充滿하여잇스면寒風쯤이야 우습읍니다。그러나 心臟이나 가슴의活動이 弱하게되면 季節에견디여날수업는것은勿論、身體全體의 健康이 恒常威脅을밧게됩니다。이러한健康에 弱한것을 느끼는분들에게 只今 評判인『救心』의試用을推奬하는바입니다。
皇漢藥의寶貝로서 또印籠藥으로서 有名한麝香과 烏犀角、熊膽、牛黃、眞珠等 數種의貴重한動物호루몬의生藥을 配合하고極히緻密한比量으로 嚴製한『救心』은 小粒藥으로 잘體內에吸收되고 心臟과가슴의病患部에作用하여 機能을恢復시키고 體芯으로부터 健康力이생기게하여 底力잇는健康體를 맨들므로 潑剌한元氣가업는분은 아모조록 한번 이藥을試驗하십시요。

心臟의動悸와숨찬것이나어서
『피顏色이조하젓다』는말을듯는다
(目下救心試藥進呈中이니곳救心本舖로申込하라)

岡山縣小田郡稻倉 大橋明夫氏로부터
拜啓陳者小生이心臟이弱하여 苦生하고잇더니『救心』의連用으로 動悸숨찬것이멋고 顏色도조하젓다고 남이 부러워할만큼健康하게되엿습니다기괴感謝하오며 近隣同病者에게도紹介코저합니다。

救心藥價는 一週分一圓、二週分二圓五十錢、三週分五圓으로 藥店데파-트에 有함 品切인때는救心本舖로 (振替東京七二六番)

特種動物精膽藥『救心』實驗一日分 無代進呈
目下『救心』二日分과『心臟의手當と食養生』一冊을 一人一回限進呈하므로 申込하는분께 無代進呈합니다。
申込은 東京市京橋區西八丁堀二丁目二十七 救心本舖 電話京橋二○一一番·九四○番

救心의効力잇는症狀
◇心臟病으로苦痛하는분
◇肋膜과肺가나쁜분
◇胃가弱하야食慾업는분
◇心臟이弱하고動悸와숨찬분
◇胸弱하고熱과기츰나는분
◇盜汗으로밤에苦痛하는분
◇神經痛으로手足아픈분
◇心臟脚氣로苦生하는분

朝鮮人의 氏制創設은 內鮮一體最高目標의 具現

南總督、非强制性을再三强調

내선일체의 최고목표를 구현하고저 조선사람에게 새로씨제도를 창설하야 희망하는사람에게는 내지인식 씨를창수있는길을열어 기원(紀元)이천육백년의 기원절부터 실시하야 이미씨를 창설한사람도 수천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희망하지안는 사람에게 내지인식 씨(氏)를 창설하지안흐면 성(姓)이 그대로 씨가되고 내지인식 씨를 창설하드라도 성은 그대로 호적에 남어잇다 이제도의 근본정신을 오해하야 마치 내지인식 씨창설을 강제하는듯이 생각하는 사람이업지안흐므로 남총독은 이사실을 중요시하고 오일의 총독부 정례국장 회의석상에서 다음과가치 내지인식 씨창설은 절대로 강제하는것이 아니라고 다시금 취지를 선명하여 관민일반의 주의를 환기한바잇섯다

씨제도에대하여 자칫하면 오해하는사람이잇는모양이나 결코 강제적으로하는것은아니다 조선동포에게 내지인과가튼 씨를 창설하는 길을 열어준것이다 이것은 내선일체를 구현하는 어인정(御仁政)인것이다 관계관민은 이점에대하여 특히 오해하지말기를바란다 (사진은 남총독)

工業學校三校新設

釜山、裡里、興南으로決定

年五百名輩出의技術者養成强力陣

신흥아건설의 전진기지로서의 사명을지고잇는 조선의 지하자원개발 생산력확충 사업의발전은 급템포로 진행중이므로 총독부에서는 기술자의 자급자족을목표로 십오년도부터 공업학교의 대량증설에착수하여 우선 금년에 부산(釜山)이리(裡里)흥남(興南)세군데에 공업학교를신설하기로되엇다 경성, 평양과아울러 공업학교는 다섯군데가되고 완성후에는 해마다 오백명의 신진"엔지니어"가 공업조선에 등장하여 "공업조선"에 마상의기염을 토할터이다

二月中屠殺數

이월중 경성부민이 먹은 소, 말, 도야지의 수량은 [illegible] 가그중에 [illegible] 여기다시 [illegible] 가 끼어잇다

세멘트袋回收

各道에積極慫慂

세멘트도 귀하거니와 그와갓치 귀한것이 세멘트넣는 종이푸대이다 더욱이 푸대는 대용품이업기때문에 총독부식산국에서는 그동안각도로하여금 세멘트쓰는 사람은 [illegible]

平均十對一의競爭

"如削히試驗煉獄은童心世界恐迫한다!"

府內五中學校志願狀況 今日正午現在

부내각고등여학교에서는 벌써 입학시험이끗나고 합격발표가 잇섯는데 중학교의 발표도끗나서 부내배재(培材)중앙(中央)양정(養正)휘문(徽文)보성(普成)의다섯사립중학교에서는 금오일부터 금년도입학생의 지원마감을 하엿는데 금년에는예년과 조금달리각중학교의 시험일자가 한날이기때문에 지원자들이 다소분산되어 예년과가튼 그런 심한경쟁률은 업슬것으로 예상하엿스나 역시그예상을 완전히 번복시키어 오히려 더심한경쟁률을 보이고잇는데 그중에가장 심한곳은 휘문학교의 십이배를 비롯하여 평균십배를 모두초과하여 아홉명이나 열명을 제치지안코서는 도저히입학할수가업는 조화스러운 어린이들의 초조와불안은 말할것도업고 그들의부형의 마음도 한시안정되지 못할것이 아닐까 이제각학교에서 오일정오까지 접수된지원자의 개략수를보면 다음과갓다

校名	應募者	募集人員	競正
培材	一〇五〇名	一五〇名	一二〇〇 一五〇
中央	一四六〇	一五〇	徽文 一八〇〇 一五〇
			普成 一五〇〇 一五〇

이수짜는 오일정오까지 접수된 개략수짜이므로 이삼일후의 정확한 수짜는 지금보다도 훨신 더만흘것이라고한다

巧妙한謀利

쌀한차관에육백원이상폭리

三和洋行主取調中

곡물검사소의 계량과 경제경찰의 취체계량사이에 차이가잇는데 이속을보고 쌀로된것까지 지는 조화스나 그우에 또돈으로 공정가격을 위반하여 쌀을팔다 붓들린 거상이잇다 종로 한청(韓靑)빌딩안에 잇는삼화양행(三和洋行)이봉운(李[illegible])

各學校卒業式

協成實業

협성실업학교(協成實業)금년도 졸업생 칠십사명의 증서수여식은오일오전열시 동교에서거행되엇다 우등생은 상패에두명 공로에 한명으로 그들의이름은 이래와갓다

優等生 商業科 金東朗 金相賓 工業科 沈斗變 (사진은 우등생일동)

京城農業

경성농업학교(京城農業)제십칠회졸업생 칠십오명의증서수여식은 오일오전열시 동교강당에서 거행되엇는데 우등상수상자와 오개년간 개근상수상자는 다음과갓다

優等賞受賞者 徐庭福 金儀榮 任龍君 李鎭大 李鍾鎬 崔潤鎬 金明洙 五個年間皆勤賞受賞者 賞理佐 金儀榮 鄭鎬孝 文炳 創 金慶鎬 李載鎬 金東順 柳東德

(사진은 우편으로부터 우등생 황리성, 서정봉, 김영래, 임봉군, 이학필, 어의찬, 최하진, 김명수제군)

物資逆流防止次

內外地物價懇談會開催

朝鮮側으로는關係各課長、事務官、屬等參席

기보=공정가격을 결정할때내외지사이에 적연협의이업시가솔 가치결정하면 유입기라판게로 내지물건이 조선에 흘러오지안코 그바대로 조선에서 자급자족되는 물건은 내지보다싸게정하면 내지로 흘러나가는등 일이잇서서 그러치안하도 공세한 물자수급이등에 큰지장이 생기는 경향이 점점농후하여 가고 잇다는것은 기보한바이다 이러한폐해를 일소하여 내외지사이에 물자가 역류(逆流)되는일이업게하는데는 내외지를 종합하여 일원적 물가정책을 세울필요가잇서서 상공성(商工省)에서 내지판게각성과 외지 각판게청이모여 내외지 물가간 당회를 열기로되엇는데 조선에서는 총독부에서 각영식산국물까조정(角永物價調整)전관식산국 [illegible] 삼정(井坂)식산국상공과장 농림국(農林局)농무과장 경무국(警務局)경제경찰과 경제과(經濟課)등이 부기획부재이(渡邊)제일과장 [illegible] 외 각파장과 물까조정과 사무관 이사관, 속등 십여명이 출석하리라한다

國策型生活狀態調査

混食黨이折半以上

京城府時局總動員課、府民의節米狀況集計

경성부 총동원과에서는 지난번 (湊米)이후 [illegible] 부내남미창정(南米倉町)조선산업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도로부터 칠백오십 여섯카관(시기오만여원)을 사들여 공정가격보다 비싸게 왕십리정(往十里)모정미소를 비롯하여 부내의 각정미소에팔아 만흔부정이득을 내엇는데 그가 불경제계에 들어나 취조를 밧고잇는데 그가 본 이속이 묘하다 즉 미곡검사소에서는 한섬으로 계량한 쌀을 제량도 본래 육십키로 하고도 있는데 "사십내지 칠십그람" 이 남어 이되는데 경제경찰에서 따지는 계량은 순전히 한섬육십키로를 의미하므로 이것으로 이익을보려고 조선산업에서 사들인 쌀을 해도빼진(白川)지방에서 칠분도 미 여섯차를 붓들어 우선 쌀로남기고 도배끼와가마니를 남긴것까지는 좋은일이나 그우에 또 돈으로 남기려고 공정가격보다 더비싸게팔어 한차관에 육백원

이것은 부민의 호식(混食)상태는 어떠한가 아직도 백미만을 먹고잇는가정은 얼마정도나되나 다시 이것을 도심지대와 외곽(外廓)지대와 공장지대등 지역별로 따져본다면 어떠케달븐가 내선인별로 본다면 어떤수짜가 나올것인가─이런 여러가지점에대하여 알어보기위하여서 경성부 시국총동원과에서는 저번에 해진 학무과의조사방식과는 전연다른 입장에서 각지역별로대표적인 내선인일개 공사립소학교아동을 자료로하여 총오수일만이천팔백사호에 대하여 세밀한 조사를하엿는데 그결과 다음과가튼 흥미잇는 결과를어덧다

즉 총오수이천팔백사호중 보리나 조가튼 잡곡을 석거서먹는 국책당(國策黨)이 칠천일백이십삼호로 총호수의 오십육퍼─센트 즉반수이상을 점령하고잇고 기타는 순백미 칠천도미 배아미등인데 그중에서 아직도순전히 백미만먹고잇는가정은 열퍼─센트 졸남직하게 남어잇다 어것을 지역별로보면 도심지대는 칠천일백사십삼호중 호식은 사백팔십삼호 즉 십이퍼─센트이고 문밖 즉 외곽지대는 삼천오백사십구호중 호식당이 이천이백사십오호 즉 육십삼퍼─센트이고 공장지대(영등포북근)는 이천일백이십이호중 호식당 팔백팔십칠호 즉 사십이퍼─센트 백미당은 오백오호 즉 이십사퍼─센트로 되어잇다 결국아직도 백미를 만히먹는 고잇기는 공장지대가 월등이고 다음은 문안 가장적기는문밖이다 바꾸어말하면 공장지대가 가장 백미당이만타 그리고 이것을내선인별로본다면 내지인은 백미

[illegible] 겨우삼퍼─센트밧게는 안되는데 조선인은 십사퍼─센트를 점령하고잇는데 이것은 조선인측은 지주계급이만허서 대개시골서 자기집추수를가저다 먹는때문으로보아지는것이다

皇紀二千六百年 記念植樹

各郡愛林部總出 綠化運動展開

學童에게愛林思想鼓吹

☆京畿道管內記念事業

황기이천육백년을 기념하는 가름 임업(林業)과 그부산물의 증식을꾀하는것이 가장 뜻기픈일이라고하야 경기도에서는 작년팔월 중순부터 [illegible] 의 가술회의를 소집하고 이 생산의 기초 [illegible] 제일 농촌진흥회에 태뷰의사업 에대한 협의한결과 다음과가튼 결정을 보고 오는사월부터 실행에 옮기게된다

洋食 廣橋그릴 電話光三一九九

齒科全般 X光線科 金昌齒科 金山草梁入口 電七六一

鍊武

해마다 거듭되는 입학난리 에 덧무더다니는 "기부" 노름이라 바더서 유익하게써야할 것이마는 봄에기부하라 겨울에기부하건 조흔사업을 더잘되라고 기부하는데는 조금도탈잡을바못하나 이러케 기부를바다 노코보니 신세스러워다기 보다 감사한정은 비례로업는것이리, 더구나검찰과가튼 직근화가진 사람들도아니고 마음소흔 학교선생님네들이만흠 고마운성(기부)에대한 인사가 업지못하게될것이니 ◆인정상 그럴성조흔집 자녀에대해 시험에도 호히생각한다 ◆역시 이 인정이 냄새 가 나는것을 어찌라

틈이여전한 모양이다 ◆연전에시내모중학교에서는 무슨기념사업이니 무어니하고 기부금을 학부형들에게서 평장하거두는데미 만히 거둔일이있서 의문이사납다고수군수군하던끄테 숙제를합 태의화부형(아니는지모른다) 에게서잇는사람들은지모른다) 에게도 할수 있는 일이라 한다 의문이사납 [illegible] 보다 [illegible] 기이는일도 잇섯는데 소이기부관 경은 생각하면 자치하여 입을 도을는 못으로 내는것이니만큼 이를 거절하는것은 실례도 될

府營長硏市場計畫

豫算六十萬으로新年度에着工

현재경성시내에서 일년동안에 소비하는 장작은 현재 경성시내에서 일년동안에 약육백만원 육백오십만원어치의 장작을소비하는데 장작업자에대한 특히구속이업는만치 소매상인이 한수레나 다 개수를헤어서 파는사람 파는양식이 일정치아니하야 지로 불편하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잇는 이가튼 등한이 여러가지 결점이잇서 소비자의 부담을 갑게되기는 그러므로 부에서는 이런폐단을 덜게하여

부영장작시장을 세우기로 도로하고저 부영장작 시장 설치를 계획하고 [illegible] 경성역(京城驛) 부근이 내정된곳은 동대문 밧 청량리(淸凉里) 북근이 내정되어 이 개 비육십만원을 노려서 이개년계 회으로 공사를 진행시킬예정인 데 부내에서 공과회도에 대로오는 사업의 부권판의 수량대로하다면 이 부영장작시장이 완성되는날이면 적어도 현재의 일년소비량의 약 [illegible] 원가량은 부민이

公平町에旅行屍

사일오전시경 부내공평정(公平町)이 번지에는 이름모를 오십삼세가량의 노인이 죽어잇는것을 종로경찰서원이 발견하고 검시후 사체를 경성부에 넘겻는데 죽은원인은 몸이라고는하나 아직 출고 또 나이가 나이라 밧게서 헐벗고 지나는 동안 위장병이 나서 죽은것이판명되엿다

으로 한복판에서 임성보이상의 임야를 어든후 밤, 감, 살구, 대추나무를 심어장래 여기서나는수입으로 부락민의 세납등을 내도록할것

(二) 지방에 신사(神社)신사(神祠)를 조영(造營)케 하고신원(神苑)에 소나무 정다무 낙엽송등을 심게하여 경신숭조의마음을 함양시킬것

(三) 학교림, 학교등에 나무를 심은것이며 각학교 청소년단에게나 리를 조성하여 밤나무 젓나무등을 심어 아동들의애림사상을 기를것

이상세가지외에도각지방에서는 부와 면의사업으로지방의풍치림 방풍림 가로수등 지방실정에적합한 식수를 실행하게되엇는데 이미이게획은 지방민의열의로준비면은 거진다되엇다 따라서오는사월삼일을 전후로각군의 애림부 약일천사백명의부민과 [illegible] 에의하여 일대애림운동을 전개하게되엇다

스포츠

全朝鮮스키─大會 鐵道軍이制覇

[元山支局電話] 전조선스키─대회(元山鐵玉)에서 제구회 전조선스키─대회는 삼월사일부터 삼방(三防)스키─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엇는데 [illegible] 남자전은 [illegible] 경기에는 철도가 [illegible]

滑降競技

1、松山(鐵道)六分四七秒 2、坂本(鐵道)六分五七秒 3、比留間(鐵道)六分五九秒 4、山下(鐵道)七分一三秒 5、大內(京城)七分四秒 6、伊藤(元鐵)八分〇一秒

総走 (二十二粁)

1、松山(鐵道)(大和田, 吉田, 森) 二時間五十六分五四秒 2、城津高普(渡部, 古川, 沈) 三時間〇一分三四秒 3、元山(山下, 永谷, 小松, 大塚) 三時間〇一分四八秒 4、元山商業(伊藤, 川崎, 王村, 松田) 三時間〇二分〇四秒 5、元山中學(大平山, 鄭, 大村) 三時間〇四分一五秒

海外短信

大會新記錄六 米學生室內陸上

第十九回全米學生室內陸上선수권대회는 지난二日 마디슨·스퀘어·가─든에서 대회 新記錄을 내어 다음과갓다

◆投擲丸 1、딱로지스(조지타운大學) 六大米八四七

◆六十高障碍 1、딕카─(따─트마스大學) 七秒三

◆千碼 1、빼─로─위스(프린스톤大學) 二分一二秒八

◆大學 1하─바─드(큐─ 大學) 一分二秒二

◆繼續 1예일 [illegible] 五三二

◆新人二哩 1조지타운大學 七分九秒二

全米室內庭球

뎃크스單複優勝

全米室內庭球選手權大會決勝은 지난二日 마디슨·스퀘어·가─든에서 [illegible] 다음과갓다

◆男子單式 뎃크스 6─3 6─1 6─4 막크닐

◆女子單式 매비안夫人 7─1 9─4 5─6 베츠 [illegible]

◆男子複式 6─3 6─4 사다─모

◆女子複式 7─5 9─4 카미롤

南加大學과 오大野球戰

太平洋沿岸北部大學聯盟의 [illegible] [illegible] 南加大學이 [illegible] 四十六對三十一로 [illegible]

梨花高女

田熙子 申永淑 崔貞善 洪萬永 金元慶 朴珍愛 高賢貴 [illegible]

幸運의合格

淑明高女 (一六八名)

[illegible]

以上一六二名

日本勸業證券株式會社 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電話本局四〇五四番・振替京城二九七番

紀元二千六百年記念 愛國福合せ債券 興亞福合せ債券 賣出 六枚一組每月抽籤案內書進呈

喘息·神經痛과 高血壓 中風 今津博士의 畫期的 硏究 不治아니다

今津硏究所

時計 完全修理 京城鐘路二丁目 普信堂時計鋪

[illegible] 金英椿 頭 빗오는埠 [illegible] 콜럼비아普及盤

Columbia

胡白菜種子豫約募集 中國節成三尺胡瓜 大滿一號甘露西瓜 支那三尺茄子 滿洲農園

香味爽やかな 仁丹煉歯磨

中古樂器高價買入 京城明治町二丁目

朝報局內

印章名刺型錄 京城府太平通二丁目

古本高價買入 京城寬勳町

富圭浣齒科 京城鐘路三丁目

事務員採用

理髮師高級待遇採用

神効藥

늑막염 임질약 京城府長沙町一四六 濟世堂

有給社員及代理店募集

明新高等女學校 生徒募集

漢榮中學院生徒募集(詳細問合)

日活東西大合同總動員映畫 忠臣藏 阪東妻三郎·嵐寬壽郎·月形龍之介 片岡千惠藏·轟夕起子 6日ヨリ8日マデ

日活京都超大作 鬼の大會 阪東妻三郎 二役主演 9日ヨリ コロムビア特作 河床の毒蛾 黃金座

第二放送 [illegible] 朝の音樂

續新文學史 "新小說"의 "擡頭" (一○)

林 和

이期間은 아마 朝鮮의農民層가 小說우에 表現되기의 唯一의 例일지도모른다。우리는 亦是 먼저도 이야기했던 春香傳에서 百姓들이 春香의貞節을 要求하여 官家의行惡을 하는님전으로 事狀가지는 農夫歌의 一節을 想起할일이 있다。그러나 事狀과 民擾는同時에 論할바가 아니요 더구나 하느님前 事狀이라는것은 民衆의 偶然가 絶對的인 怨恨으로만 있는 한나머지 노래에서나 볼일이다。

民擾는 百姓의偶然가 忍耐할수있는 限界를넘어서 暴發한것이요 그것이 行動에까지 高調된것이다。이期間은 煽動者는 志士의 아들이 말하는것처럼 確實한民擾요 더구나 不平兩班을 指導者로한 多分히 組織化된 一揆의 成熟한 하고이다。

眞一 이야기를 다시春香傳과 比較해서 論한다면 하느님前 事狀이라는것과 官前을 쫓는 使令들을 때려죽이자는 行動과의 사이에는 前進이 있다。

한 春香傳時代와『血의淚』의 三代의 李朝 政治機構의 腐敗度의 深刻가 反映되어있을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도 이 新小說은 新小說時代와 新小說作家의 社會生活과 時代意識을 代表하는 作品이라고 할수가있다。

그러나 이 地位에 있는 不平兩班을 指導者 乃至는「헤ー」련 兩班의 民擾의指導者 李朝末期朝鮮社會에 있어서 가장 一般的이던 民擾의 形態를 보았아니라 一般封建社會末期에 西歐에서도 가장 强力하던 性質의 民擾의 一揆라할수있다。

『러시아』의『스텐카·라진』『푸가쵸ー프』等의 一揆가 그러한것이요、獨逸의農民戰爭이 그러한것이다。

그것은 農民의 土地에있어서의 近代的要求를 表現하는 形式이 아니라 下層農民의 動亂하는 市民社會를 背景으로 하여 政治上의 近代的要求를 表現하는 一 兩班이기도하다 農民에 있어서는 土地、貴族에 있어서는 政治改革 이것이 農民一揆의 形式하는 歷史의 內容이다。

『開世界』가운데 이兩面은 單純히 그것이 李朝末의 社會現實을 反映해다는 것보다 더 한가히 그때 農民과 下層兩班이 西歐나 그밖의 外國에서 가치 어떠한 要求를 內包하고 있서는것을 反映한點에서 價値 있는部分이다。

抽象的으로가 아니라 行動을 通하여 明確히 自己의 要求를 表現한點에서……

그러나 이期間은 또한 그意味內容에서만 아니라 그表現의 生生한點、民衆의 意見이 어떠한 方法으로 일어나는 것을 모든點에서 또한 價値있다。

農民에 對한 周到한 細密한 描寫 이 地方官에 對한 憎惡으로 化하고 그것이 뭉치어 그들의 不平과 不滿을 點火하는 契機가 되어 그들을 行動에 옮길수있게 만든다。그러나 行動을 統率하고 方向을 集中할 人物이 없서 그러한 集團行動이 開始되지아니한다。거기에 金進士의 아들가튼사람이 필요하다。

여기에 行動에 必要한 모든條件이 具備된다。그다음으로는 그들의손이 여자다

면 農民의 憤怒한 群衆의 行動은 一轉千里로 進展되고 그러나 이 小說에선 行動이 끝까지 미치지는 아닛다。

金進士가 이러케 百姓들을 모아 民擾로 나아가려 할때 義兵隊가 나와서 百姓들을 鎭壓하고 金氏를 捕縛한다。그리고 金進士의 아들은 『스텡카·라ー진』이 되지아니하나 指導하는 人物이 아닌것이다。金進士의 아들은 村夫로서 能히 一世의 民擾 首領이 되었을것이다。

文化時評 哲學과哲學的思索 ②

金基錫

人間이 自己를理性的存在로 理解하기까지에는 오랜期間이걸렸스리라고생각된다 自己를

理性的存在

로 規定하고 이理性 또는 思惟의普遍性을 認識하여 이것을 한개根本實在로보면서 모든事物을 理解하려고했을때 人間의思惟는 한개 빛나는 黎明期에 들어섯다고보여진다 人間의 이自己規定은 오늘에이르러서도 오히려 기픈意味를가진다 人間에게는 毋論 單純한思惟만이 있는게아니라 思惟的인것보다 더 먼저 行爲的이요 實踐的이라고 보는것이 人間의 本質規定에가까울지모른다 그러나 이르는바 行爲또는實踐이 單純한物理的運動을 가르치는것이아니요 어디까지든지 主體의意圖、決意、記憶、反省을 要求하는데서 思惟는依然히 人間存在의 한개빛나는 徵表가 아니면안된다。

哲學은 道德、藝術、宗敎가튼것들과 함께 神話에서 갈려나왓다고하거니와 一切의文化의根源으로서의 이神話야말로 人間의 어린思惟가 自然에대하여 그려본것이 아닌가。그리고 이 神話的思惟를 行爲의面에 두고보면 道德으로 나아간것이요 藝術또는宗敎라고하면 感情의面에로 끌고나간것이고 이것을 思惟의面에로 끌고나간것이 哲學이아닐까。哲學은 實로 人間의思惟에서 그根源을 發見하고 人間의思惟를 떠나서는 그運命을 사치하지 아니치못할것이다。哲學이 따로잇고 人間의思惟가 따로잇는게아니라 哲學이 곧 人間의思惟의 根幹을 構成한다。哲學의 衰滅은 곳 人間의思惟의 衰滅이요 아울러 그本源또는 根幹의 衰滅이라 하겠다。哲學의興隆 이것은 다름아닌 人間思惟의 發展이요 겸하여 人間자신의 發展을 가져온다。

이러케보아온다고하면 哲學은 비단 哲學者만의 關心이아니요 자신으로 人間을 생각하고 社會를 생각하고 社會와 文化를 생각하는者는 한게더보러 哲學을위하여 기렁파탄식을 가치하지아니치못할것이다。

哲學은 希臘사람들의품에서 自己를『根源』의學으로 出發시켯다。그리고 이것이 中世의 神學的思辯을 거쳐 近世의 觀念論에이르러 한개 雄大한 體系를 構成하기에 이르렀다。지금 우리들은 이를 先人의業蹟을 그들의 남긴 遺産에서 차저보거니와 이遺産속에서 우리들에게 계양하여 不斷히속삭이는것은 多彩한그들의 哲學的思索의世界다。그들은 自己들의 理解를가르친다。一切의 前提에서 떠나 存在의 現象을 一切의 假定에서 떠나 그根本構造에있어서 省察闡明하고 一切의 根本的인것을 究明하는데 다름아닌 哲學의 本領이 있도록 한다。哲學은 그것이 根源의學인것과 함께 全般의學이요 體系의學인 것이다。

文化的創造

로서의 意味를 가지거니와 哲學역시 한개 新創造가 아니면안된다。哲學에있어서의 이創造를 마든것이 바로 哲學的思索이다。

學이 된다。기괴생각한다고하지마는 조각조각해어진 斷片은 아직 哲學은 아니다。哲學이 어떤 對象을 부분하여가지고 各個에 가지도록 생각해볼어가야하거니와 그것을 全體와의 關聯에서 살피지아니하여서는 안된다。哲學은 希臘哲學以來 根源의學 原理의學으로써 最深한 根本實在의 探求는 哲學의 宿命的인課題라고 조차도 보여진다。그런데 이 한개 實在의學이 西洋哲學의 根本眼界는 古代 中世 近世 現代를 通한 西洋哲學의 또그 哲學的思索의 一貫한 態度이다。哲學이 『이데아』 實體、理性、自我、精神、絶對者 等으로

最高의實在

를 차즈려고 하고 이것을 여러모양으로 術語해 나려왔다。

우리들은 우리들을 둘러싼 한 구석 存在가 잇음을 알거니와 이 存在는 存在와함께 언제나 事實을 보이다。『事實』의 世界、『存在』의 世界에 대한 『事實』의 世界란 어떤모양의 構造를가지는 것일까。

漢詩募集

滄東考選

題 春寒

押 寒韻部 (古詩韻府)

期限 三月十五日 (隨附通知)

餘白 (下)

徐廷柱

나에게는 大凡 아래와가튼 經驗이잇다。

일러면 나의 大運이란옛솔때 호주머니에 一二十원 衆錢이잇솔때。차분히수면서 무엇이술一夫하고지솔때。그러케 나도 남과가치 술 꺼끗해보고시픈때。

寒生바게는 치르지안는다는것을『네、나는佛敎專門學生이요』어떠케어떠케 간신히 틀리서 한달에十七八원짜리 下宿房하나를어더서노코『네、집이요 곳오게오겟읍니다 우선先金貳圓두千원만바도시지요』古物商에가서 헌 冊床과 낡은담요를하나 사가지고와서 그놈아피누어서 그놈을깔고『꽃이로다 꽃이로다』그러생각을 마의 줄할려고 하며는、

『廷柱 거잇냐?』門을열고 들어오는 執行吏의 얼굴。이런네무서이잇는 나를 어떠케알고 차자오지일까。나의 敎能을 속삼한 내는날이면

나의一身을 餘地업시 破滅시키고야말 그무서운 秘密을사실은 속속드리 알고잇는이『니겔』레眼鏡을쓴 무서운빨빨。나의그림자。

『흔엇는가』

『흔엇서』

『잘데가 업는가』

『업서』그날밤부터 우리는 조그만 한개의담요속에 엉조혼 동무로서、그러나사실 外面하고 드러누운 나는四肢가떨려서 어디로 도망갈까 오리로 도망갈까 밤내 그것만 생각하고 누어서이 원수가 나의입버릇을 승내 내여語를 웃는것도 全身의 毛孔으로부터 누런물을 철새어시 흘리는것도 또肺病第三期의가래가튼기침을 캑캑하여자는것도 도또도도흔들파발통을 도무지 꼭지안흔

그더러운 手足으로 나의谷性을자꾸만 性慾과가치 건드려찻는것도 一毫牛句 反對하지는 못하는것이다。이러케하루가 가고 이틀이가고 사흘이 가고 나흘이가고 한달이 지낸후에 冊床도 담요도 다시저의 故鄕을 차저가고 뚜르맥이도內衣도 다어디로가고 방값은 半以上 외상을지머지고 드디어 길거리로 조껴나와서 치운 네거리길에서면。

『또보세』

『또보세…』 우리들이는 如前히 握手하고 鄕愁캐갈라지는것이나、헤매여다니다가 어찌어찌해서 내가 도봉만 하나가지게되면 한번도 이저버리는일이업시『廷柱 거잇나?』하고는 들어서고 들러서고하는 그놈。

이놈은 實로 變化無雙인 것이다。

내가 할수없이 되어가지고 故鄕집에나 내려와잇는때면 혹 어찌다가이런『蠶業의手記』가튼것이라도써 달라는이가잇서 겨우그初頭 몇줄을쓰잇노라면 아ー이여우가튼놈은 어디잇다 또여기까지 찰리들어오는것인가! 인제는 藍色三衆바지 내버지의장위를하고 如前히그 피투이문은 기침을 캑캑하면서 또다시 내思考의前面을 막아서는것이다 우리러보면아니보게아니라 그게제제한 눈빨이끼었까지 조곰도 틀림업는우리아버지다。

『나는 어려서부터 너를알고잇다。네 故鄕을 잘알고잇다。이말할는 반는줄아!너를 소돌이여서잇이나 퍼먹두둥까지 키워준것은 내가 아니냐。나다。너의아버지다

어서 파려라『너』를 파려라。三千圓에 四十圓에!그래서 나를 奉養하여다오』

一『흥!』 詩라고。흥!文學이라고。너가튼 장님의子息이 그래도 퍽 이름字는 내보고시픈모양이로구나!안되느니라 安되느니라 四六時間 언제나 내 이더러운 네개의手足으로 네精神經의重要部分을 드을록 묶지르고만 잇슬거니까 어디한번 생각해봐라!아무리 악착한逆境에서라도『흥!』꼿까지 한번 그래보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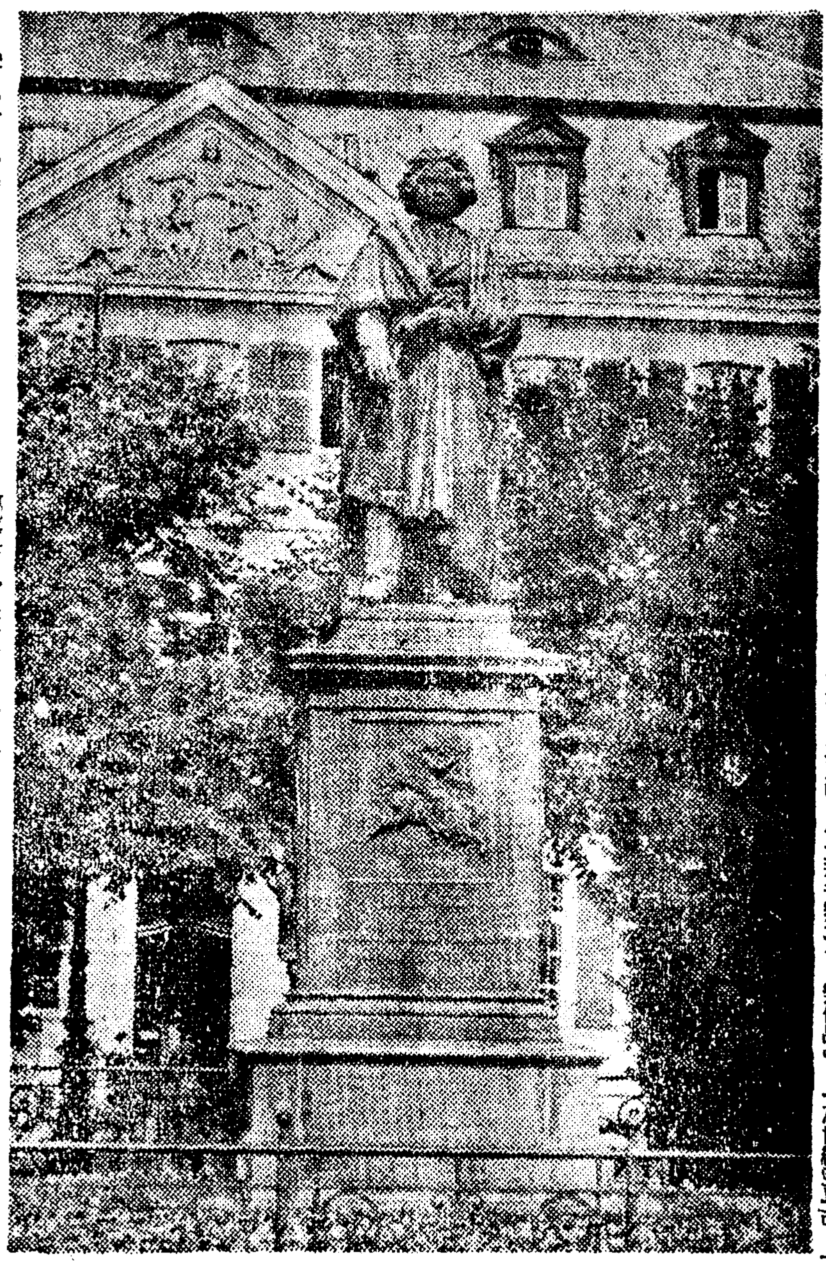
언제나 醜惡에조그마蠶板알을 發師하고다니는 그슬픈退物가튼 鄙調까지가 인제는다이여빠진 장작개비鬼때가치 검은빠다귀우에점점이날은 악상하니 여원 모습까지가、그러면서도흔들을과가튼 검오스레한 눈알

까지가 어찌면 이리도 틀림업는 아버지냐。

이러한四大時間、오一이러한날이 날마다의 四六時間 나는 또다시 詩도原稿도 冊床도 房도 깨끄시 내몰릉아리까지도 발가벗기 찌저버려야만하는것이다! 꽃이 시 擬新刊성을 다틀엇치다 가는 어푸러지고 어푸러지고하면서도 一分一秒의 休息도업시 놈選擇해야만하는 그自由히 嚴峻한 畫夜行路에 그광의渾意로 쉬여서 四大를 도다시 내여던지아만하는것이다。

이것은 일러면 나에겐宿命파같다。이、아마는 나의 誕生파가치 誕生하여서 나의를아가는날 물아갈모양인 慰로……

하늘은 基本的인 殺業分이니라。一아마 그러케 基本的인 殺業分이니라。



不滅의榮光 ❶

永久히 記念할 이銅像이되엇다。지금『본』市에잇다

一八四五年『베ー토ー벤』音樂祭에『프란즈·리스트』가 私財를던저 寄附를 모아서 獨逸人彫刻家『헤ー넬』의 손으로 그의功績을

現代伊太利音樂 純粹音樂의復活 (上)

金水鄕

伊太利音樂하면『오페라』를 생각하고『오페라』하면 伊太利音樂을 생각하리만큼『오페라』의觀念을 떠나서는 伊太利音樂을 思惟할수업고 存在할수업다 이것이 우리가가진 伊太利音樂에 關하여 가장普遍된常識이다 이러한常識(誤謬)은 우리가가진 伊太利音樂에關한 貧弱한 知識의허물 도되나 그보다 伊太利音樂그

自身의 허물이더크리라이다 한때에伊太利樂界는『오페라』가 洪水처럼 氾濫하여 純音樂이 라고 그存在소자 생각키어려웟다 卽十八世紀로부터 十九世紀가 그러한時代이엇다 베ー토ー벤、슈ー벨트、슈만、쇼팡、멘델스존、부람ー스、세자르프랑크、단디ー、듀팍크、가부리엘·포오레의빗나는純音樂作品이 十八世紀로부터 十九世紀의 所産이것을 생각하면 伊太外音樂史에도 純音樂의 黃金時代가잇섯다 十六世紀로부터 十八世紀初葉에 이르기까지의 古典時代가 그러하다。 旺盛、鼎立한音樂의作家로 伊太利古典音樂의 宗師格인 파레스트리나(一五二五?ー一五九四) 悲愁의音樂으로 알려진 몬테베르디ー(一五六七ー一六四三) 清純한音樂의 칼리라(一六七○ー一七三六) 華放한表現의 스카루라ー(一六八五ー一七五七) 均齊美와繁妙한 音樂의 지마로ー자(一七四九ー一八○一)等은 作家들인데 伊太利古典時代를 代表하는 作家들인데 伊太利音樂藝術에잇서 巨大한 柱礎的作家로 伊太利音樂史上에서만아니라 歐洲音樂發達史上에서도 그功勞를저바릴수업는 古典音樂家들이다。

×

이리하여 燦爛한傳統과 빗나는古典을所有한 伊太利音樂이 祖上의精神을 저바리고純音樂을反逆하여『오페라』에서 오페라로 迷倒하여 伊太利音樂史上에 純音樂의 暗黑時代를 이루엇섯다 畢竟에는 오페라그自身도 沒落하여 그前路가 막키고야마럿다 이에目한『메로드라마』와 센치멘탈한『애기조티즘』으로 沒落한 所謂『베리즈모(Verismo)』作家ーー마스카ー니(一八六三ー)、푸지니ー(一八五八ー一九二四)레옹카발로(一八五八ー一九一九)에 이르러서는 伊太利오페라가 沒落의深淵에 빠저서섯다。

×

한때에 伊太利音樂이 祖上을 저바리고 純音樂의 故鄕에서 떠나 他鄕에서 他鄕으로 放浪하였스나 內心에는 남모르

는 故鄕의생각이 가득하였섯다。伊太利樂界에 純音樂이 顚覆하려하고『오페라』에『오페라』로 狂亂하는時代에잇서서도 一方에서는 伊太利古典으로 純音樂의 復歸로 원로精神의再生을 부르지즈며 伊太利音樂의 永遠한本鄕으로 돌아가 將來할 現代伊太利音樂의 樹立을 理想하여 이時代를 가 리키 伊太利音樂의 復興時代라고 본다 스감바ー티(一八四一ー一九一四) 마르루치(一八五六ー一九○九) 카라라ー니(一八五四ー一九二三) 스마레리아(一八五四ー一九一九) 보ー시(一八六一ー一九二五) 부조니(一八六六ー一九二四) 오리피체(一八六五ー一九二二) 시니가리아(一八六八ー一九四四) 等은 伊太利音樂藝術의 興全한發展을위하여 자운 한十字架를 짊이며 現代伊太利音樂의 先驅的作家들이다 이리하여 現代音樂은 伊太利音樂이 復興되어 이태르브란도·피제티ー 프란체스코·마리피에로、아르프레도·카제르라 에이르러 最近 二十年內外에 隆然한 風貌를 나타내게 되엇다。

現代伊太利音樂이 生誕、發育되는 過程에 안으로 祖國의古典을 傳統에 忠實히 비롯하여 事實도 歐洲의國民派音樂에게 身勢를 지엇다。여기서 새삼스럽게 獨逸의 古典浪漫 音樂의 重壓을 論하지 안하여도 조흘것갓다 그리고 獨逸의 로만티즘、佛蘭西의 印象派音樂의 影響도 적지아니하였다。또는 마ー라ー、스트라우스、레ー거 等의 影響、北歐의 스크리아빈 等이 ... 一二의 影響이 直接間接으로 現代伊太利音樂은 近代로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에 歐洲의 複雜多岐한 新思潮와 新音樂運動에 現代伊太利音樂의 一一히 投影된 歷史的事實을 理解하기는 大端이 困難할것이다。

學藝안테나

日本畵交替陳列

德壽宮李王家美術館에서는 日本畵陳列을 交替하여 一日부터 公開되엇다 今回 陳列된것은 橋本關雪氏의 『秋江』 及 川端玉章氏의 『花鳥』 故 速水御舟氏의 『野花』 等 十八點이다

入學試驗問題集 (京城豫科篇)

昭和十五年度

國史 (文科甲類)

(注意) 答案ハ答案紙ニ横書スベシ

(一) 聖德太子ノ御政治ト大化ノ改新トノ關係ニ就キテ記セ。

(二) 武士ノ勃興セル事情ニ就キテ記セ。

(三) 江戶時代ニ於ケル蘭學ノ發達ニ就キテ記セ。

(四) 明治時代ニ於ケル我國ト淸國トノ關係ニ就キテ記セ。

數學 (時間二時)

(注意) 答案ハ答案紙ニ橫書スベ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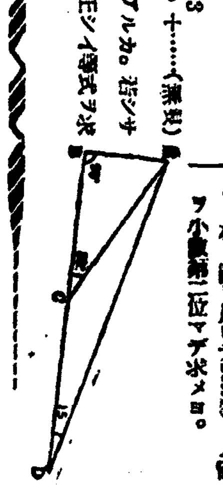
1、1)a)ー1)b)ー1ナリ

$a=1+a+a^2+…$ (無限)

$b=1+b+b^2+…$ (無限)

ナリ

$\frac{xy}{x+y-1}$ 等シキコトヲ證明セヨ。



2、一直線上ニナイ三點A·B·Cヲ中心トシ互ニ二ツヅツ切スル三圓ヲ畫ケ。

3、三人ノ兄弟ガアル。四年前ニ(各人ノ年齡ノ比ハ…)ナシ…タガ、現在ハソノ…各人ノ現在ノ年齡ハ幾ツカ。

4、正三角形ノ紙片上ニ一點Pヲトリ、三ツノ頂點ガPデ重ナルヤウニ紙片ノ隅ヲ折リ、且ツ折リ返サレタ部分ハ互ニ重ナルコトノナイヤウニスルニハ、Pハ紙片上如何ナル範圍ニアレバヨイカ。

5、右ノ圖ヲ用ヒテsin15°ノ値ヲ小數第三位マデ求メヨ。

漢方醫學의再認識 (2)

金子剛

나는머리에 近來에 漢方研究熱이 膨脹하는것을 歷實하였다。그러나 이제現代醫學에서 하고잇는 漢方研究의 方法을보면 도한따한일이만하다。그들은漢方을 研究하는것이아니오 漢藥의成分을研究하여 그『메키니즘的』療法에쓰는 補助藥物을 찾고잇는것에 不過하다。그러므로 그들의 漢方研究는 언제까지 繼續할지라도『메키니즘』的醫學의 境地를벗어나지 못할것이 明白한同時에 治療의 行程도 依然히 나라나지못할것이다。

全體醫學의 新理想。그로부터 出發하는 全體的療法의創造는 먼저漢方을 現代的으로解釋하는곳에 잇다고나는말하다。이것의 準備工作은 새로운

生命觀의 樹立이 잇서야할것이오 그와同時에 現代醫學의 (그所謂科學的)研究方法에 根本的으로 一大革命을 하지안하면 안될것이다。

나는이事實을 좀더明白이보히고저 左의數語를 記錄하려한다 『째줘너ー』의 種痘發明을 紀元으로하여 長足의 進步를거듭한 免疫學、細菌學과 解剖學을 基礎로 發達한 外科手術學이 現代醫學의 가장 자랑인것은 새삼스럽게말할 必要도업거니와 現代醫學이 有效한人工的『빽친』(Vaccin) 과 血淸等을 製造하여 防疫에 大貢獻을하고잇는것은 고마운事實이다。(外科手術도 겨지안흔 行績을 내고잇거니와 그反面에잇서서는 手術을濫用하여 切開、切斷을 하지안코 簡單하게 治療할수잇는 患者로하여금 不具者를만드는 罪가 적지안타。)

現代醫學은 이러케特殊性免疫學에는 全力을 傾注하면서도 非特殊免疫性은 全然忘却하고잇는것이 遺憾이다。(特殊性免疫性이란 虎列剌나 窒扶斯와가튼 그一種의病毒에만 免疫을 엇게되는것을 말함이요 非特殊性이란 어떤 病毒에든지 一般的으로 免疫性을 가지게되는것을 말함이니 感冒나 肺炎加答兒에 걸렷을때에 發動하는 治癒力 곳 自然의 根本的治癒力을말함이다。自然療能이것이다。)

現代醫學에서도最近刺戟療法이니 變調療法이니하여 注射나 熱病의 人工的感染等의方法을 提唱하는 一곳이非特殊性免疫性에對하여 多少의關心을가지는 傾向도엽지안흐나 漢方에서는 發해서언제든지에 內服藥이나 灸

孫子講義 (四)

滄東散人

軍爭篇

故로兵은以詐立하고

(註) 梅堯臣이曰詭道가 아니면 能히事를立치못하느니라

(通解) 故로兵은詐로써세우고

以利動하고

(註) 梅堯臣이曰利가아니면可히動치못하고

(通解) 利로써動케하고

以分合爲變者也니라

(註) 曹公이曰兵은一分一合하여 敵으로써變케하미라

(通解) 分과合으로써 變케하는者이라

故로其疾은如風하고

(註) 梅堯臣이曰오는것이形跡이업다는말이라 疾은빨으다할

(通解) 故로그빠른것은바람과 가트고

其徐는如林하고

(註) 杜牧이曰徐는緩也니 緩行할때에 모름지이 行列이잇서 林木의森然不亂함과가트니라

(通解) 그천천한것은 林木과가트고

侵掠은如火하고

(註) 如火는形勢가불과가치猛烈하다함이라

(通解) 敵의國의侵掠함이 불과가치猛烈하야 可히막지못하나니라

不動은如山하고

(註) 我가城壘을굿게하야 지키매 安固하야動치못하는것이 山과가트다함이라

(通解) 움즉이지못함은 山과 가트고

難知는如陰하고

(註) 그測量치못함이 陰雲이 天을蔽하야 星辰을보지못함과 가트니라

(通解) 알기어려운것은 그늘 짓子量과가트고

動如雷霆하고

(註) 動하기를빠르게함이 雷霆과가터서 미처막지못하게함이니 太公兵書에曰『疾雷不及掩耳』이라하니라

(通解) 動하기는雷霆과가치하고

掠鄕이어든分衆하고

(註) 梅堯臣이曰 鄕의邑을 侵掠하야어든바財物이잇거든我

의兵衆에게 나누어주다는말이라

(通解) 敵의땅을엇거든 그利益을我의將士에게 나누어주며

廓地어든分利하고

(註) 梅堯臣이曰『功이잇는將士에게 땅을나누어준다할이라

(通解) 敵의땅을빼앗는다할이라 나의兵衆에게 나누어주며

懸權而動하여

(註) 權은저울로 物의輕重을 헤아리는것이니 무릇자우라하매 먼저敵의强弱과 實虛를저울질하야 헤아린後에 動하나니라

(通解) 저울질한後에動하야

先知迂直之計者는 勝하나니此는軍爭之法也니라

(註) 張預ー曰무릇敵으로더부러利를다투매 반드시먼저道路의遠近을 살핀안然後에動한즉 進退遲速에 그機會를일치아니하여 勝利를 엇나니라

(通解) 먼저멀고가까운 꾀를 아는者는 이기나니 이는軍爭의法이니라

軍政에曰

(註) 王晳이曰軍政은古의軍書니라

言不相聞故로爲鼓鐸하고

(註) 鼓은金鉦也니 古語에曰 兵은 鼓의소리를듯고 나가고 金鉦의소리를듯고 물러오라하니라

(通解) 말이서로들리지아니하는故로 鼓와鐸의소리로 軍士의 귀를울리며

新刊紹介

▲靑色紙 二月號 發行所 京城府朵屋町七二靑色紙社 定價十錢

▲文敎の朝鮮 一月號 發行所 朝鮮總督府學務局內 朝鮮敎育會 振替京城一○三○番 定價三十錢

▲月刊野談 三月號 發行所 京城府明治町一丁目八八 月刊野談社 振替京城二六三五二番 定價二十五錢 送料一錢

▲얼세동무 (少年少女長篇小說) 盧良根著 發行所 京城府堅志町三二 漢城圖書株式會社 振替京城七六六○番 定價八十錢 送料十二錢

日本輸出·病院藥·一

補血强壯 ブルトーゼ 부루ー도ー제

抵抗力强化

本劑가病後의衰弱 手術後의補血 其他貧血性諸障碍의必須藥으로서 內外醫家의重用을밧고잇는것은첫재本劑獨特의强大한造血作用에依하는것인데同時에

本劑의特異한細胞原形質賦活作用은나아가서積極的으로榮養을充實하고에네루기ー를補給해서各種消耗性疾患의治療에貢獻한다卽一般虛弱病弱體質의改善育抵抗力强化劑로서推奬되는所以에不外하다

榮養不良 惡液質 慢性貧血 諸病恢復期等 ブルトーゼ (小瓶三圓 大瓶五圓)

神經衰弱 神經性諸疾患 皮膚疾患 性病等 アルゼンブルトーゼ

虛弱兒童 腺病質 動脈硬化 痔疾 肋膜炎等 ヨードブルトーゼ

食慾不振 胃腸疾患 病後衰弱 ヒステリー等 キナブルトーゼ

結核諸症 肺結核 喉頭結核 肺尖加答兒等 グアヤコールブルトーゼ

冊子「活動の源泉」無代進呈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各帝國大學病院常備藥 造血아웃호르몬

藤澤藥品

B1510

戰時下各國生活態相

가장 徹底한 獨逸

惡質統制違反엔 死刑

【支那】 먼저 支那의 狀況에 對해서 보면 自國領土 抗戰支那의 主要據點인 雲南 …

雜穀輸入量에 依해 米移出量을 決定

海上輸送權의 米倉歸屬은 浪說

外米價格비 싸지 안타

湯村農林局長言明

湯村農林局長은 四日午後 米移出量問題 米倉의 朝鮮米海上輸送契約權問題 外米의配給價等에 對하여 如左히 말하엿는데 朝鮮米의 海上輸送契約權을 米倉에서 掌握햇다는 것을 否定하엿다

米倉이 海上輸送의 契約權을 掌握한 것가치 傳하나 事實은 다르다 實狀은 矢島米穀市場會社社長 石塚米倉社長을 만나 그러한 일이 잇나 물어보앗더니 그런 事實이 업다고 한다 大體 米穀會社에게 米의 買上을 命하엿스나 이것을 어떠케 處分할가는 農林局으로서도 態度가 決定되어 잇지 안타 今後의 雜穀輸入量에 依하여 移出量이 決定될 것이므로 今後의 情勢如何로 或은 朝鮮內調節에 充케될지도 모른다 이런 때에 잇서서 買上米를 어떠케 할가 아직 決定이 업다 事情이 이러하니 어떠한 機關을 通해 어떠한 方法으로 해서 보내겟느냐 하는 것은 決定될 理가 업다 나는 總督府의 幹部의 一人으로서 말하는데 現在 어떠한 海上輸送契約權을 米倉에게 주지 아니할 뿐 아니라 將來라도 米倉에게 이러한 契約權을 附與할 意思는 업다 米倉에게 이러한 權利를 주어 內地의 船會社와 朝運을 競爭케 함은 摩擦을 일으키는 外에 아무것도 도움될 것이 업다 米倉은 米倉으로서 使命이 잇스니 이 使命을 逸脫치 안는 程度의 擴張은 無關하나 이 以上은 생각해야 될 한다 世間에서는 農林局이 米倉과 特히 密接한 關係가 잇고 이것을 두둔하는 것가치 誤解하고 잇는듯하나 別로 그러한 差別的 생각은 업다 要는 朝鮮米統制의 完璧을 期함에 어떠케 할가 하는 大局論에서 取할 것은 取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수밧게 업다 新聞에는 外米의 價格이 相當히 高價이고 現在의 米價를 上廻하고 잇다 하나 그런 일은 업다 輸入價格은 石二十四圓이 最高로 이에 配給經費를 加하더라도 三十六圓 前後가 되어 現在의 米價보다 顯著히 低價이다 또 精米와 抱合販賣等도 全然 考慮치 안햇다

雜穀組合에서 外米를 配給

石三三圓二六錢拂下

農林省으로부터 總督府에 引渡完了한 釜山入荷의 蘭貢米는 어제 總督府에서 中央雜穀組合에 一袋(一六八斤)에 對하여 二十二圓八十五錢으로 拂下되엇다 數量은 全鮮으로 十五萬九千五百袋(約十一萬石)인데 其中十一萬二千四百袋는 左의 地方에 分送하기로 決定하엿다

木浦	二五、〇〇〇袋
群山	四六、七〇〇〃
淸津	二五、〇〇〇〃
仁川	一六、七〇〇〃
計	一一三、四〇〇〃

其他의 殘餘四六、一〇〇袋는 釜山、鎭南浦、元山等에 輸送될 것이다 拂下價格은 釜山에 잇서서의 價格으로 一般配給價는 地方別運賃諸費用其他가 加算되어 이 拂下價格은 內地에 잇서서의 拂下價보다 一袋當經費諸經費 十四錢의 高價인바 石으로換算하여 (一袋六斗八升)三十三圓二十六錢가량으로 豫想보다 低廉하다 그리고 이外米는 大部分旱害地救濟를 主體로하는 食糧不足의 補充에 充當되는 것으로 價格의 高低如何보다도 量的確保를 第一義로 取扱할 것으로 今後價格에 미친 …

日本戰時經濟力

(一)

【모스크바發同盟】 二月廿九日發行의 「프라우다·뻥크·오프」의 月報는 最近의 日本經濟動向을 分析하여 如左히 말하고 잇다

支那事變勃發以來三個年間 日本의 戰爭遂行能力은 아직 消耗되지 아니햇다 그러나 最近 그經濟資源이 漸少하게된 것은 事實로 이 事態를 急速히 收拾하는 것이 有利하다는 見解가 相當히 擴及되고 잇다 事變은 日本의 經濟에 重大한 마나 豫期할 수 업는 것이나 興味 잇게 말하고 잇다 日本의 戰時經濟는 偉大한 才能과 先見으로써 處理되고 그 困難의 兆候가 表面에 나타난 것은 最近의 일로서 是在 破局이 切迫하엿다 고 볼수 없엇다 但 日本이 이대로 現情勢를 持續하면 物價의 「이플레」的 騰貴와 生活水準의 惡化는 免치 못할 것이다

北支炭增産計畫

十五年度目標達成?

【北京一日發同盟】 日滿支經濟建設에 잇서서 石炭供給者로서의 重要한 役割을 하는 北支炭은 十四年度에 잇서서는 水害治安關係 其他惡條件을 克服하면서 計畫目標百%에 가까운 出炭量을 보이엇는데 十五年度에 잇서서는 一層增大되고 日滿及現地의 需要에 對應하고저 興亞院華北連絡部에서는 지난 二月二十六日부터 四日間에 亘하여 軍官民關係者의 參集을 求하여 北支石炭增産懇談會를 開催하고 石炭需給의 一般情勢及 增産策에 對하여 協議하고 增産計畫 使用資材勞務輸送 資金 籌力及産業治安에 關하여 意見을 交換한 結果 十五年度의 增産計畫目標는 完全히 可能하리라 豫測이 서게되엇다

外炭入荷

三月中九萬噸

【大阪電話同盟】 政府는 石炭不足對策으로서 外炭十萬噸輸入을 決意하고 어미 加奈陀로부터 四萬噸 印度로부터 三萬五千噸의 輸入契約이 成立되엇고 藤原商相은 去八日의 衆議院豫算總會席上에서 言明하엿는데 右에 對하여 日發大阪支店이 二十八日의 發表에 依하면 此中三月中에 九萬噸의 外炭이 入荷될 豫定으로 第一着으로서 印度炭五千噸이 二十九日 돈스베—號로 神戶에 入港되어 卽日陸揚에 廻送되고 繼續하여 후 양가號(八千噸載)他一隻으로合計二萬噸의 外炭이 神戶를 거처 尼崎에 入荷되는 一方 加奈陀炭은 一日 神戶入港의 크레프트론(八千五百噸載)을 爲始 其他三隻으로 合計二萬二千噸이 陸續到着하여 三月中에는 九萬噸의 外炭이 陸揚되게 되엇다

滿炭一億圓增資

【新京四日發同盟】 滿炭에서는 昨年度에 比하여 四百萬噸에 達하는 大增産計畫을 遂行하기 爲하여 一億圓의 增資와 技術系副理事長 一名의 增員을 計畫하고 잇는데 이에 伴한 會社法의 改正은 四日의 國務院會議에서 決定되엇다 따라서 滿炭에서는 今月中旬에 總會를 開催하고 附議하기로 되엿다 今般增資에 依하여 同社의 資本金은 三億圓이 되고 新副理事長에는 淺內常務理事가 內定되엇다

密山炭坑

開發會社

資本金一億圓

【東京電話同盟】 滿洲炭鑛會社의 密山炭田開發에 關해서는 前부터 滿洲國政府滿炭及日鐵과 사이에 具體的으로 協議를 거듭한 結果 日鐵及滿炭共同出資에 依하여 密山炭鑛株式會社를 設立하기로 意見一致를 보앗는데 設立事項은 如左하다

一、名稱 密山炭鑛株式會社(假稱) 二、資本金一億圓 株數二百萬株(半額拂込) 三、出資比率 滿炭百萬株日鐵五十萬株日鐵系 衆五十萬株)

社長에는 河本滿炭理事長 相談役은 平生日鐵社長이 就任할 모양이다

○木材商聯總會 木材商聯合會에서는 八日午前十時半부터 京城호텔에서 總會開催

高周波三期工場

尙未最後的決定

城津二期計畫完成

日本高周波重工業高橋專務는 四日後城津으로부터 歸任하엿는데 如左히 말한다

城津工場의 二期計畫은 大體完成되고 로—라裝置는 남엇다 二期計畫은 五日에 一齊히 火入키로 되엇는데 第三期工場을 어디다 가질지는 아직最後的決定을 보지못하엿다 十一日渡東하여 關係方面과 折衝하기로 되엇다

日本高周波株

三宮家御持株

今回日本高周波重工業의 增資에 當하여서는 賀陽宮、東久邇宮、李鍝公의 三宮家로부터 特히斯業御奬勵의 고마움신 생각으로 增資新株御持株의 榮光을 賜하사 同社에서는 有賀社長、高橋專務以下 感激하고 잇는데 御持株를 하시지 안는 各宮家에서 今回高周波株를 御持株하신 것은 十五銀行株御持株以來의 일이라한다

全朝鮮鹽務主任會議

事賣局에서는 오는十二日부터 四日間 同局會議室에서 全朝鮮鹽務主任會議를 開하고 昭和十五年度鹽需給計畫、鹽生産及輸移入計畫과 鹽配給機構의 整備强化에 對하여 協議하기로 되엇는데 右會議에 鹽賣捌人組合理事會議도 開催할 豫定이다

新義州丸(朝郵)을 朝鮮汽船이 買受

朝鮮汽船에서는 社船擴充에 積極的으로 進出키로되어 그 第一着手로서 親會社인 朝鮮郵船으로부터 新義州丸(七九五噸)의 讓渡를 受코자 總督府遞信局에 對하여 認可를 申請中이엇든바 三月一日附로써 認可되엇스므로 六日釜山에서 受取키로 되엇다

多獅島解氷

第一船光州丸入港

오래동안 結氷과 流氷으로 閉鎖 狀態이던 多獅島港은 危險期를 버서낫스므로 朝鮮郵船에서는 第一船으로서 光州丸(定州丸改名 四、一〇〇噸)을 六日仁川出帆同港에 入港케 하기로 하엿다 鎭南浦港은 目下大汐로 流氷이 甚하여 船舶의 航行이 危險하므로 多獅島港으로서의 復航에 光州丸을 入港케할 豫定이다

過燐酸移入困難

一—四月分을 繰下

本肥料年度에 잇서서의 過燐酸의 移入은 歐洲戰亂으로 燐鑛石의 入荷가 不如意함에도 不拘코 比較的 順調로 移入을 보고 잇서서 여서 特히 有効期間을 三月末까지 延長하기로 決定하고 五農村對策部長으로부터 總督府農林局長에게 殖産局長通牒을 …

	移入豫定數量	改正數量
一月	二八、一六六	二八、一六六
二月	三〇、四四六	二四、六二三
三月	三〇、六二一	二五、六二〇
四月	三七、五〇〇	二三、〇〇〇
五月	四〇、〇〇〇	一〇、〇〇〇
六月	三〇、〇〇〇	一〇、〇〇〇
七月	二〇、〇〇〇	八七、六三四
計	二一六、七三三	二一六、七三三

세멘트購入證

有効期間

三月末까지 延長

昭和十五年度第一期分세멘트購入證의 有効期間은 當初一月末까지엿스나 어購入證發行이 諸 …

세멘트紙袋回收

物資節約의 强化에 伴하여 세멘트用紙袋의 配給數量도 顯著하게 減少되고 그대로 放任推移하면 包裝用紙飢饉을 招來하여 出荷不能狀態에 陷할 것이 必至이므로 紙袋를 全部回收케로하고 特히 回收率이 不良한 곳은 세멘트配給停止의 强硬手段을 講究키로되어 五日此旨의 殖産局通牒을 各道知事에게 發送하엿다

세멘트輸出

一元的統制

【大阪電話同盟】 세멘트輸出의 一元的統制를 目標로 前般來淺野、小野田、磐城、宇部等의 各세멘트製造會社及三井、三菱의 各輸出商會에서는 貿易組合法第十八條에 基하여 세멘트輸出組合設立을 準備하기로 되엇든바 오는 二十五日新大阪호텔에서 創立總會를 開催키로 되엇다 그리고 從來鮮滿輸出統制를 하고 잇든 日本세멘트輸出商會는 自發的으로 解消케될것으로서 同組合이 設立된 後는 第三國向의 輸出統制는 勿論 外國세멘트와 同組合及 輸出商과의 사이에 出荷協定을 할모양이다

金屬製品協定價

五日·商議에서 制定協議

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金屬製品에 對한 協定價格에 關하여 協議키 爲하여 五日午後一時부터 同會議所에 業者를 招集하고 具現化의 協議를 하엿다

石炭業組合

〃同業組合〃改稱

朝鮮內의 石炭配給統制를 强化키 爲하여 朝鮮石炭業組合聯合會의 構成團體인 無煙炭鑛組合、有煙炭組合、內地炭移入組合、石炭輸入組合을 새로이 配給團體인 同業組合으로하고 聯合會를 統制團體으로하여 朝鮮石炭同業組合聯合會로 改稱키로되어 右指定認可를 申請中인데 大體四月一日부터 實現할 모양이다

十字銃

▼…朝鮮米百五十萬石輸移出 대신 雜穀三百萬石輸入을 協定한 것은 湯村農林局長의 훌륭한 政治的手腕.

▼…紳士的協定을 매진지라 雜穀을 안보내면 쌀도 보내지 안허야할 것은 當然又當然.

▼…滿洲雜穀이 잘드러오지 안코 內地서도 보내지 안는 것이 잘오지 안흐므로 湯村局長言明 日「米移出量은 今後 雜穀輸入量에 依해서 決定한다」고.

▼…「情勢如何를 따라서는 移出用買上米를 朝鮮內調節에 充케될지도 모른다」고. 라면서도 내보내는 誠意를 생각한다면 片務的 移出만 하려는 것은 잘못.

▼…「金으로부터 銀에 鑛의 政府集中開始.

▼…銀製品全般에 걸쳐 全國的으로 回收.

▼…一匁十錢을 바둘 생각보다도 生活에 支障이 업는 것이니 自進賣却할 일.

今日財界 五日

◆米穀(京城、公定價)

正租(石)(銀坊主三等)一斤二錢〇〇
玄米(石)(銀坊主四等)(石)(四圓四〇)
七分搗白米(小賣價(同三圓五〇)

◆雜穀(京城、鄭賣價)(公定)

大麥	一大〇斤	十六圓二〇
裸麥	一二〇斤	十九圓五五
粟	二四〇斤	三〇圓〇〇
大豆	龍山三等	三三圓六〇

◆株 (單位十錢)

	今日後止	比前日
朝新	三八	止
東新	三元	三低
鐘紡	一三〇	一高
鐘新	一〇〇	一高

◆商品 (先限單位錢·圓)

	今日後止	比前日後止
綿布 大阪	四·六五	三低
棉花	六〇·〇〇	五高

株式

消極傍視

凡調

前場凡調 今朝는 東新不變인 百四十圓七 鐘新一低인 百十一圓一 鐘新도 不變인 百六十九圓七 東新百四十圓一 大體로 不變인 模樣이엇다가 寄付로後 鐘新百十圓丁에 大引

後場軟合 後場은 東新二高인 百四十圓三에 寄付後反弛되엇다

大保合時期

齋藤問題는 再次逆轉하여 齋藤氏가 自退를 飜意하엿스므로 今後大勢的으로는 除名이 不可避하리라 하여도 紛糾를 거듭할 모양이다 其他 歐洲에서는 依然和平의 可能性은 적어보이고 戰局擴大의 勢에 刺戟을 주면 한材料가 업스므로 大保合時期에는 드러온 市勢는 全然無風地帶에 빠

市場十字路

㈱ …金鑛의 威力을 빌어 出動을 하려하면 買氣를 冷却시킬 材料가 나와서 市勢는 大保合時期에 陷入▲齋藤問題는 再逆轉되엇는데 政治的情勢의 集約的 表現인 만큼 迂曲이 만흘 것 ▲現物에는 深押이 업스리라는 常識은 金鑛의 買勢를 보면 首肯되는 바▲그러므로 淸算도 意外의 突發材料가 업는 以上 下放을 期할수도 업을 모양

延取

賣買全無

不成

前場不成 今朝는 賣買가 全然업섯다

後場同調 後場도 賣買가 업시 場을 停止하엿다

經濟界消息

▲人見次郞氏(朝鮮商議會頭)五日午後渡東

今日의 市勢 五日

大阪商品市況

【大阪電話】 ▲豆粕 有機肥料會社의 豆粕配給에 關한 準備는 販賣價格決定을 보고 狼狽하여 第一次配給計畫도 如左히 決定하엿다 大阪—川口支店、小浦商店、森六、鈴木、直木、有馬、田中、權 그리고 配給機構는 一日整備되엇스나 有機會社로부터의 配給이 업서 形勢觀望으로 不變狀況 ▲小麥 西日本小麥特約店商業組合(名古屋以西近畿、中國、四國、九州各地區의 會社、特約店約四千店으로서) 組織은 其後着着準備가 進行되어 發起人屆出도 하고 目下 製粉會社 資格證明書를 作成中인데 아마 今月中에는 創立總會를 開催하게될 모양이다 此間地方의 實物은 依然中絶

現物船株高

現物戰線은 歐洲戰局擴大氣勢로 船株에 對한 買氣가 再燃되어 郵船은 又復百圓臺突破인 百圓四十엇고 同新은 八十三圓七十가량 商船도 丸十九圓二로 關門에 肉迫하고 잇섯다 朝鮮物은 小林鑛業新이 拂込增資說로 三十三圓丁까지 上昇되엇다

今日現株市勢 (正午調)

對外爲替

對米	百圓에 二三弗一六分七
對英	一圓에 一志二片八分三

以上朝鮮銀行建値

銀行券 四日

◆朝鮮銀行券◆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限外發行	[illegible]

海外經濟 四日

京城物價 五日

金利手形交換

三國志 (119)

韓雲 譯
熊超 畵

曹操와 袁紹 (四)

파가와 정욱이 돌파열성을가 마리하고 도라와서 조조가 현덕을보내어 군사를 서주에 나가 게한것을알고 급히들어가간하되 「승상이 무슨연고로 유비로하여금 군사를거느리게 하엿느뇨」 ... 「원술이 가는길을 끈케하려함이라」 정욱이 말하되 「전일에 유비가 예주목사가 되엇을때에 우리들이 말씀하여 죽이라 하엿스되 승상이 듯지아니하고 이젯날에 또 군사를 주엇스니 이는 룡을 노하 바다로 보내것이오 범을 풀어 산에 돌려보낸것이니 뒤에 다시 다스리고저한들 어찌 가히 어드리오」 파가가 말하되 「승상이 유비를 죽이지는 아니할지라도 마땅히 보내지는 말것이라 옛사람이 말하되 하루에 적을 노흐면 만세의 근심이라 하엿스니 바라건데 승상은 살피소서」 조조가 그말을 올히여겨 드 … 허저로하여금 군사 오백을 거느리고 빨리가서 아무조록 현덕을 좇아오게 하라하니 허저가 응락하고 떠나니라 현덕이 정히 행하더니 뒤에 티끌이 일어남을 보고 관장에게 말하되 「저것은 반드시 조조의 군사가 좃는것이라」 하고 하여금 각각 진을치고 군기를 가지고 하여금 진을 치고 양편에 서게하엿다 허저가 이르러 군사의 정돈되어 잇는것을 보고 말에나려 진에들어가 현덕을보거늘 현덕이 말하되 「공이 어찌왓느뇨」 「승상의명을 바둘고 왓는데 특히 장군을 청하여 자치자 서 별로 상의할일이 잇노라」 「장수가 밧게 잇서서는 임금의명도 밧지안는일이 잇는데 내가 이미 임금을 뵈옵고 또 승상의 허락을 바닷스니 별로 다른 론이 업슬지러 공은 속히 돌아가서 나를위하여 승상에게 품하라」 허저가 가만히 생각하되 「조조가 현덕으로 더부러 친하고 또 이번에 나보고 싸우기까지 하라는것은 아니니 다만 현덕의말을 전하고 중일을 기다리리라」 하고 현덕을 사례하고 돌아가 조조에게 현덕의말을 전하니 조조가 결단하지 못하거늘 정욱과 파가가 말하되 「유비가 짓거어 군사를 도리키지 아니하니 가히 그마음이 변한것을 알리로다」 조조가 말하되 「내가 주령과 노소를 보내여 …

느리고 나갈새 정히 원술의선봉 거령을 맛난지라 장비가말도아니하고 곳 거령을 취하여 십여합에 어르자 장비가 한소리를 크게지르며 거령을 찔러 죽어니 패한군사가 달아나더니 원술이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쳐오거늘 현덕이 군사를 세길로 나누어 주령 노소는 좌편에 잇고 관장은 우편에 잇고 현덕은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가운데 잇서 원술을 상대하여 서로 보는 바로 도전하엿다 … 「너는 바한 역적이라 내가 밝은조서를 바들어 너를 처노니 너는 마땅히 손을묶고 항복하여 너의 범한죄를 면하게하라」 원술이 꾸짓되 「자리를 맺고 신을 삼던 더러운 무리로 어찌 감히 나를 가벼히 여기느뇨」 하고 군사를 몰아 쫓차오거늘 현덕은 잠깐 물러가고 좌우 양편의 군사가 내닫아 원술의 군사를 짓치니 죽엄이 들에 널려고 피가 흘러 개천을 이루며 도망하는 군사가 헤아릴수가 업고 또 숭산의 뇌박 진란등이 그 돈을 탈취하여 원술의 도과 양초를 전부 하여 가고 원술이 수춘으로 돌아가고자 하엿스나 또 못 도적의 엄습을 바다 다만 강정(江亭)에 머무르니 따르는무리는 천여인이 다 노약한 이엇다 때는 성한 여름이대 양식이 떠러저서 다만 남어엇는 보리 쌀삽십곡을 군사에게 나누어 주니 집안사람은 먹을것이 업서서 굶어죽는 사람이 만하엿다

거자잇스니 헤어리자 현덕이 반드시 마음을 변하리라 하고 또 할수도 업는일이오 더불어 내가 보내것이니 다시뉘우처서 무엇하리오」 하고 다시는 현덕을 좃치아니하엿다 마중이 현덕이 어데 가고 또 현덕의 군사가 서주에 이르니 자사 차주가 나와서 마저 잔치가 끗나매 손건 미축등이 다와서 보는지라 현덕이 집에 돌아가 가족을 보고 한편으로 원술의 일을 엿탐하더니 엿탐이 돌아와 보하되 「원술이 사치가 심하고 뇌박 진란이 다 숭산으로 가매 원술의 형세가 심히 쇠하여 임금의 칭호를 원소에게 돌려보내 고자하니 원소가 사람을보내어 원술을 부르매 원술이 언마와 한남뒤에 쓰던 궁금의 물건을 수합하여 먼저 서주에 이르렛다」 하거늘 현덕이 원술의 장차 이를을 듯코 이에 관, 장과 주령 노소로 하여금 군사 오만을거